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낭독 워크샵

- 우리 시대 헌법의 의미를 묻는 연극 <당선자없음> - 난독증을 낭독극으로 치료한다!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현대인, 쇼츠의 과다 시청으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 대부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난독증!
난독증 치료 없이는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AI와 경쟁해야 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능력,
그것은 다름 아닌 말하기 능력입니다.

난독증도 치료하고 말하기 능력을 높여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사과Lab에서 낭독극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59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 백상 연극상 수상작, <당선자 없음> 낭독 워크숍을 통해 2025년 한국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미래를 상상해봅니다.

<당선자 없음>은 어떤 희곡인가요?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맞춤형 희곡, 2025년 한국 사회 맞춤형 희곡 <당선자 없음>입니다.
<당선자 없음>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하기까지를 배경으로, 제헌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속기록을 비롯한 제헌헌법 관련 각종 문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관계된 회고록, 평전 등 비공식적 역사 자료까지 참고하는 한편, 상상력을 통해 의회 바깥에서 진행된 헌법 제정 과정의 이면도 보여주는 아주 지적인 작품이지요.

함께 <당선자 없음>의 대본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의' 혹은 '공정'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최초의 사회 계약 과정을 통해서 오래전 '합의'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문 배우가 공연한 <당선자 없음>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oPB7QkPQclc?si=LSc8XAlgWKGVq7I9>

연극은 배우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 배우가 참여하는 연극과 달리 낭독극은 대본을 각자 역할을 나누어 함께 읽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의미는 대본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인문 계열 학생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능력은 자기표현능력입니다.

<당선자 없음>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헌법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낭독극을 통해 자기표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과Lab이 마련한 야심찬 새로운 학습법 개발을 위한 워크숍 참여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겠지요?

전 무대공포증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함께 무대공포증을 극복하면서 타인 앞에서 말하기와 발표하기를 통해 자기표현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워크숍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4월 15일 (화) 예비 모임

5월 12일 (월) 저녁 7:00

5월 19일 (월) 저녁 7:00

5월 26일 (월) 저녁 7:00

6월 2일 (월) 저녁 7:00

6월 9일 (월) 저녁 7:00 **낭독극 공연 예정**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25학번 신입생
- 경제학과 / 정치외교학과 / 사회학과 소속 학과 재학생
-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전공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한 재학생

주관 교수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장 노명우

신청 방법

구글 폼 작성 (<https://buly.kr/4FsDYcY>)

신청 마감

2025년 4월 14일 (월) 자정

문의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교학팀: moo70@ajou.ac.kr